

# 아름다운 항구도시

## 아나폴리스(Annapolis)



상명대학교/교수 김수홍

**2** 000년 8월초 메릴랜드의 타우슨 주립대학교에 교환교수로 발령 받아, 이곳 메릴랜드에 도착하여 짐 가방을 푼 게 엇그제 같은 데, 7월 말이 되면 일년간의 교환교수 프로그램이 끝이 나게 된다. 이곳 가까이에 고향의 향수까지도 잊게 해주는 멋진 곳 “아름다운 항구 아나폴리스”를 IPAK 회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노예로 팔려온 슬픈 흑인 노예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었던 소설 뿌리(ROOTS)의 본 고장이 바로 이곳 메릴랜드주의 수도인 아나폴리스다. 주인공 쿤타 키테가 1767년 끌려와 팔린 곳인 면서, 자신들의 조상을 잊고 살 수 밖에 없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준 불후의 명작으로 강한 결속력을 갖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이 도시의 거리거리 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원색 장식문양으로 제작된 많은 전통문화 상품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아나폴리스의 중심 항구의 공원에 알렉스 헤일리가 어린 흑인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담긴 조각상

이 만들어져 있다.

아나폴리스는 유명한 관광지로 매년 전국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든다. 특히 요즘처럼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주말에는 바다를 보려는 관광객들로 시내 거리에는 인파가 넘쳐흐르고 있었다.

17세기 바로크 식으로 건축된 18세기 건물들이 가득히 널려있고, 유서 깊은 주의회 의사당(State House), 멋진 해군사관학교 캠퍼스 등이 어우러져 아늑함까지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메릴랜드 주의회 의사당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17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원 의사당으로 1783년부터 일년간 미국의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하던 시절엔 연방국회 의사당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방에서 조지 워싱턴 장군은 독립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고, 명실공히 미국을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출발을 다졌던 역사적인 장소였다고 한다.

우아하고 고풍스런, 식민지시절부터 지어진 집이 사방으로 발달한 주택가는 꼭 유럽의 어느 도시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처럼 인상적인 도시 분위기와 더불어 작은 항구 도시로서의 이미지는 특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매년 5월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보트 쇼인 “베이브리지 보트 및 요트 쇼”가 열린다고 하며, “세계 제일의 범선 도시”라거나 “미국의 항구 수도”라는 별명을 얻은 것과 같이 해안 도시로서의 미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아나폴리스엔 미국의 해군사관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1845년 세워진 해군사관학교는 현재 4000여명의 남녀 생도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베이(Bay)를 끼고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다. 해군사관학교의 방문자센터(visitor center)에선 사관학교에 관하여 비디오 영화나 역사적 전시품, 생도들의 생활, 유명 졸업생들의 전시품 등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꼭 가볼만한 곳은 박물관인 것 같다. 박물관은 오래된 역사적 사진, 함대들의 멋진 그림 등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Spanish-American War)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군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 또 지하에는 영국국립 해양 박물관과 함께 세계 최대의 컬렉션으로 손꼽히는 17세기와 18세기 영국식의 목선 모델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이밖에 해군사관학교와 더불어 이곳의 다양한 구경거리는 대부분 도보로 20분 정도 걸면 돌아볼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으므로 힘들이지 않고도 한바퀴 돌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다. 일반적으로 18세기 건물들이 즐비한 주택가와 해군사관학교 및 주의회의사당 순서로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

시내 해안부두인 시티독(City Dock)은 모든 아나폴리스 관광을 마치고 한잔 술과 해산물 음식으로 하루를 마감하려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라고 할 수 있다. 주말과 저녁 무렵의 이곳은 멋진 요트들이 가득하여 좋은 볼거

리도 제공하지만, 체사피크 베이에서 잡히는 여러 가지 해산물 요리는 아나폴리스 관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블루-크랩(메릴랜드 특산품인 꽃게)을 비롯한 해산물이 풍부한 이 지역 레스토랑에서 삶은 크랩을 찾으면, 그 맛이 또한 일품이니 멋진 해안도시의 풍광과 어우러진 이 음식의 맛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이곳을 방문하여 보시길...

2001년 6월 메릴랜드에서

(길안내)

아나폴리스는 볼티모어와 워싱턴 D.C.에서 동쪽으로 차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450번 도로나 50번 도로를 이용하고 볼티모어 북쪽에서는 97번 도로(Annapolis)를 이용 하여 가다보면 50번 도로와 합쳐지는데 여기서 동쪽(East)으로 방향을 잡아 24번 출구로 나가면 곧장 아나폴리스 시내로 들어가는 로워블바드(Rowie Blvd.)다. 칼리지에베뉴와 만나 좌회전하고 다시 킹조지스트리트에서 우회전한 뒤 곧장 가면 해군사관학교 1번 정문과 만난다. 그 옆에 바로 시티독과 시내 상가들이 즐비한 다운타운지역으로 연결된다.